

니케아 신경에 나타난 성령의 고백과 기독교 상담

하재성*

국문초록

니케아 신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신학의 절정은 성령에 대한 교리로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임을 확정한 것이었다. 특히 381년의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성령을 단순한 능력이나 힘이 아닌 '생명의 부여자'이자 인격체이심을 고백한다. 이것은 기독교 상담에서 성령님이 성도의 중생과 성화만 아니라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체가 되심을 보여주는 기초가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명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며, 이것은 기독교 상담과 일반 상담을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위로자와 상담자로서의 성령님이 기독교 상담의 중심이 되시며, 오직 그의 중생과 성화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결되듯 오직 그를 통해 치료와 구원 사역이 가능함을 논의할 것이다. 그 결과 기독교 상담은 성령님의 감화로 내담자를 진리로 안내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도움으로써 견고한 영적 자아를 갖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 중심성에서 돌이켜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변화 곧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니케아신경, 성령, 생명의 부여자, 기독교 상담, 성화

* 고려신학대학원 실천신학 교수

I. 여는 글

니케아 신경은 주후 325년에 열린 공의회로서 기독교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을 채택한 회의였다. 니케아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존재가 아니며 다만 역사의 시간 이전에 창조된 존재’라고 믿었던 아리우스(250-336)주의에 반대하여 열린 첫 교회의 회의였다(Williams, 2002, 98).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한 니케아 신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아버지로” 고백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셨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임을 천명하였다. 325년의 니케아 신조는 다음과 같은 아나테마(anathemas, 저주의 선언)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아들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아들은 무에서 지음을 받았다. 아들은 성부와 상이한 본질을 가졌다. 아들은 불변의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공교회는 저주한다.”

하지만 “니케아 신학의 절정은 성령에 관한 교리에 있다”(Scott, 1896, 255). 왜냐하면 수많은 주장과 논쟁을 거쳐 마침내 성령님을 단순한 능력이나 은사, 마음의 동기와 같은 비인격적인 표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신성을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공교회의 고백을 니케아 신경이 확정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담과 같은 상호주관적 인격성의 조우 현장에 초월적이고 내재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성령님의 인격적 개입 여지를 시사한다. 우리가 성령님의 완전한 신성을 믿을 때 성자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Scott, 1896), 오직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고전 12:3). 다만 특이한 점은 325년의 신조에서는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라는 말로 짧게 신앙 선언문을 끝맺지만, 성령을 “하나님”으로, 혹은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381년, 오늘날 우리가 니케아 신경이라 부르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는 성령을 ‘생명의 부여자’ 및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분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주와 생명의 부여자(vivificatorem, life-giver)이신, 성령을 믿는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예배와 경배를 받으신다. 그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Denzinger, 1957).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니케아 신경의 고백은 오늘날 기독교 상담에 중요한 근간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상담자이자 위로자로서 교회와 개인에게 새생명의 부여자(life-giver)이시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그 영혼을 끝까지

돌보는 상담의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단순한 기운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인격체이셔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심으로써 성도의 깊은 여정에 동행하시는 상담자가 되시고, 믿는 자들의 주(the Lord)로서 영광과 예배의 대상이시며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신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 사역은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된 동일하신 성령님의 사역이다. 풀러 신학교의 기독교 상담학자인 Siang-Yang Tan(2014)의 언급과 같이 “성령님은 상담 회기 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상담의 시작과 과정, 상담자와 내담자의 영적 조명과 감동, 그리고 일반 상담의 범주를 뛰어넘는 변화를 일으키신다. 니케아 신경에서처럼 “기독교 상담에서는 생명의 제공자로서 더욱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할 수 있다”(Tan, 2014, 543).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간의 표면적인 갈등이나 불안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시며, 거듭난 영혼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자아의 한계를 넘어 그리스도를 덧입고 닮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영적 자아를 출범시키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삼위일체 고백의 완성인 니케아 신경이 고백하는 성령님이 어떻게 오늘날 교회와 영혼 돌봄을 위해 필요한 기독교 상담의 시작과 과정과 목적이 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 상담자이신 성령께서 생명의 부여자로서 자녀 됨의 증인이 되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며 성도의 성화를 이루어가심을 기독교 상담의 관점에서 논의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논문의 목적은 기독교 상담자가 자신의 상담이 전적으로 성령의 지혜와 조명에 의한 것이며, 상담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선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원 상담자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변화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성령님의 위로와 확신의 사역을 대행함으로써 내담자의 삶에 중생의 은혜와 더불어 자아와 대인관계의 성숙에 이르도록 이끄는 영적 성장의 지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펴는 글

1. 생명의 부여자(Life-Giver)

Larry Crabb(2005)은 그의 저서 *Connecting: Healing for ourselves and our relationships*에서 성령을 치유와 생명의 부여자로 설명한다. Gary R. Collins(2007)

역시 성령의 역할을 상담 과정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언급하였다. 한편 Tan (2014)은 상담자의 영적 민감성을 강조하며 이를 니케아 신경의 '생명의 부여자'이신 상담에서의 성령님의 임재로 연결시킨다.

그 외에도 William Atkinson(2012)은 상담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니케아 신경에서 성령님을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James Houston(1991)은 그의 저서에서 성령의 내적 역사와 상담적 치유를 연결하여 설명하였고, 김명혁(1998)은 성령의 주님과 목회상담의 관계를 다루었다. 정미현(2014)은 성령의 치유와 상담을 통한 심리 회복의 연결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손성혜(2024)는 기독교 상담가들에 대한 연구에서 상담 전, 상담 중, 상담 후에 성령의 역사 하심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논의하였다. 이것은 일반 상담이 다양한 종류의 영성을 상담의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시키는 현 상황에서, 생명의 창조자이자 원 상담자이신 성령께서 상담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주체가 되심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니케아 신조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대표적인 메타포는 '생명의 부여자'(life-giver)이다. 여기서의 생명이란 성령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의 육체적 생명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새 생명을 말한다. 이 생명의 부여자는 성령으로서, 성령이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주님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고전 12:3). 그리고 성령의 완전하신 신성을 믿지 않고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믿을 수도 없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도 없다(Scott, 1896).

인간이 거듭나는 중생의 일을 담당하시고 중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3:5-6), 그것을 근원으로 삼아 그들을 성화로 이끄신다(Owen, 2000, 261). 중생에 앞서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데(요 16:8), 이것은 성령께서 이미 전파된 말씀이나 거기서 나온 진리를 적용하심으로써 논증하시고 설득하시기에 가능하다. 물론 성령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의지로 죄의 깨달음을 거부하거나 죄 가운데 머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총에 기인한다.

381년의 니케아 공의회에서 신학자들은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처럼 삼위일체가 한 하나님이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였다. 그 성령께서는 "신성을 가지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과 거룩을 주신다"고 하였다(Scott, 1896, 304-305).

새사람이 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피조물의 특성이 아니다; 피조물은 거듭남, 갱생, 그리고 성화를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만이 그것들을 나누어주실 수 있다. 양자, 지혜와 진리, 능력과 영광의 성령,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신성의 참여자들”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어야만 하며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어야 한다(Swete, 1912, 217).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밖에 없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 곧 위로자 혹은 상담자로 묘사하는데(요 14:16-17), 이것이 기독교 상담에 주는 의미는 크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상담 가운데 ‘놀라운 상담자’(Wonderful Counselor)로 참여하시므로(Adams, 1973). 사실상 “성령님은 기독교 상담에서 핵심적이고도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Tan, 2014, 540). 성령께서 중심이 된다고 할 때 일부에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변형모델을 주장하며 왜곡된 심리학을 통일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과학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작업 자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Coe & Hall, 2016).

성령님의 사역을 대상관계심리학자인 도널드 위니캣의 ‘중간대상’과 연결하여 설명한 Stephen Parker(2008)는 성령님이 생명의 부여자라는 사실이 구약에서 사용하는 성령님에 관한 대표적인 메타포, 즉 바람 혹은 호흡을 뜻하는 ‘루아흐’(רוּחַ, ruach)의 사용에서 두드러진다고 말한다. 성령님은 창조 시 생명 창조의 주인공이셨으며(창 1:2), 에스겔의 환상에서처럼 골짜기에 가득한 뼈를 거대한 군대로 소성케 하는 생기 곧 생명의 바람이셨다(겔 37:9-10).

그렇다면 기독교 상담을 기독교 상담 되게 하는 핵심요소는 무엇인가?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그것은 프로이트나 로저스가 주려 했던 무의식을 의식화하며 발생하는 깨달음이나 내담자 중심의 무조건적 위로에서 오는 개인 치료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는 근본적인 치료이다. 이렇게 태어난 새 생명이 그리스도와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영적 성장의 지평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노력”해야 한다(Collins, 2007, 19).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으로 내담자를 이끌어주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핵심

목표라면 그것은 곧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 시켜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실행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 유지의 안전장치와 같다(요 15:4-5). 그래서 신학자 Calvin은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시는 때”가 되신다고 말한다(1986, III-1-1).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끈으로서, 성령님이 아니라면 우리 외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고통받으시고 행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이 우리와 아무 상관 없는 일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신비로운 성령의 부으심으로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흘림이 무효화되지 않을 수 있었다”(벧전 1:2; Calvin, 1986, III-1-1).

마음의 치료 이전에 기독교 상담자나 내담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생명 사역이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성령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듭남을 주신다(요 3:5). 동시에 성령은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영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죽을 몸조차 살리시는 생명의 부여자이시다(롬 8:11).

영혼의 치료를 넘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기독교 상담의 영광스러운 완성이다.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받아 새사람이 되는 것은 니케아 신조의 고백과 같이 오로지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의 역사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상담자가 상담하는 내담자가 거룩하신 성령님이 부여하시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은, 비록 상담에서 내담자와 명시적으로 나누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이를 위해 상담의 시작과 과정과 종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함을 기독교 상담자는 기억하여야 한다.

2. 자녀 됨의 공동 증인

니케아 신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은 동시에 그 생명의 유지자이시며 그 생명의 증인이 되신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성령님은 곧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 파라클레이토스)이다(요 14:16).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는 원래 수동태 형용사로서 ‘겉으로 부름 받은’의 뜻이며, 이것은 말 그대로 법정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부름받은 변호사 혹은 대변자를 가리킨다(DJG, 349).

세상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사역에는 우

선 ‘안으로부터’(from within) 역사하는 내적 사역으로서의 “내주, 인도, 간구, 인침, 보증 등이 있다”(변종길, 2012, 51).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내적 사역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하셔서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요 14:17), 인간의 편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역 즉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하시나니”(롬 8:16).

그런 면에서 기독교 상담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적 정체성마저 혼란에 빠진 내담자에게 믿음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해줄 수 있다. 삶의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은 모든 시련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구주이심을 나눌 수도 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움과 증언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롬 8:15).

칼빈에 따르면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자신감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되,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의 불확실성과 불안, 흔들림과 망상” 가운데서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실성을 증언하신다고 말한다(Calvin, Rom. 8:16). 기독교 상담자는 그 모든 믿음과 고백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궁극적으로 생명의 부여자 성령님이시며, 그 성령이 내주하시고 감화하시며 그를 떠나지 않으심을 확인해 줄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상담이 줄 수 없는 견고한 의지의 터전을 세우도록 돕는 일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시기에 여기서 ‘양자의 영’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사람들이 보통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를 정의하는 방식과 달리,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고 고백하게 하신다. 이것은 앞서 새생명을 주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셔서,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자신이 받은 생명을 확인하고, 그 생명의 의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알게 하신다(롬 8:16; 고전 2:12). 여기서 비롯된 개인적 신앙고백의 생성과 그에 따른 확신의 과정에 성령의 역사는 주도적이다.

특히 성령님은 거듭난 사람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공동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영생, 그리고 영생의 상속을 확신하게 함으로써 위로하신다(롬 8:16-17). 이 과정에서 성령님은 죄인인 인간의 영을 지극히 존중하셔서 흡수하거나

떨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증언하시는 공동의 증인으로 일하신다. 이에 비해 사탄과 악령들이 인간을 ‘차지하려 할 때는’(possession), 인간의 신체와 영혼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며 멸망시키려 한다(Giszcza, 2023). 복음서에 나타난 마귀의 파괴적 역사나 본 연구자의 1차적 축사의 경험에서도 악령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신체를 폭력적으로 대하며 그들의 영혼을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성령님은 인간 영혼의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하시며, 개개인의 정체성과 인격을 침범하지 않으신다. 다만 성령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감동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을 때 자녀 됨을 확신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도록 하시며, 설교[의 이해]를 증진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새창조의 능력이 되신다”(Paige, 409). 성령은 생령으로 지음받은 인간의(창 2:7) 영과 더불어 공동으로 일하셔서 인간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 결과 파커에 따르면 성령께서는 상담의 상황에서 영적으로 안아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을 친히 창조하셔서 매우 견고한 영적 자기(spiritual selves)가 등장하도록 도우신다(Parker, 2008).

믿음의 사람 각자에게 임하는 복음은 말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다(살전 1:5). 성령은 사람의 영을 영감된 열정으로 채우시며, 복음에 대한 견고한 확신을 주신다. 이 과정에 “성령과 인간 영의 연합은 너무나 밀접하여 신약에서는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구별하기조차 종종 어렵다”(Ellicott, 1 Thess. 1:5). 예수님의 보혜사 예고에서와 같이 진리의 성령은 각 사람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며(요 15:26), 그것은 반드시 권능 혹은 능력과 더불어 나타나 성도의 자녀됨과 소망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행 1:8; 고전 2:4).

성령님은 오늘날 우울감과 죄책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 됨의 증인이 되심으로 확실한 위로를 주신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느끼는 고난의 순간에조차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아바! 아버지!’라고 크게 부르짖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신시킨다”(Luther, 1535). 루터에 따르면 비록 사탄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빼앗아 모든 위로마저 앗아가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런 순간에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견고한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심으로 위로하신다.

성령께서 친히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시는 이유는 성령님

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신학자 칼빈에 따르면 성령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혜택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기 때문이다(Calvin, 1986, III-1-4).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전달하시고 적용하시는 역할을 하신다. 그에 따르면 중생, 회개, 믿음, 성화 등 구원의 모든 과정이 성령의 사역이다. 죄로 죽은 인간의 마음을 다시 살려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며(요 3:5),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감화와 격려를 해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다(롬 8:15-16).

그런 맥락에서 칼빈은 성령님이 “믿음의 비밀한 창조자”이며, 성령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끈(bond)”이라 하였다(Calvin, 1986, III-1-1). 즉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견고한 한 몸이 되고, 그분의 생명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뜻이다. 그것은 곧 성령님이야말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공로를, 신자들 가운데 내주하시며 끊임없는 속삭임으로 확인해 주시고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곧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조명하여 보게 하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상담자들이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도 상담해야 하기에 때로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간과한 채 문제 해결에 치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자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굳건한 정체성은 성령의 역사이다. 그것을 믿고 인지하면서, 매 상담에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담자가 어떤 사람이든, 상담의 여정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이 더불어 감화하시는 상담이 되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의 자원이 내담자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상담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 상담에서 어떤 초월적인 순간이자 창조적 경험을 하는 것은 상담 중에 진행되는 성령님의 조용하면서도 깊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Parker, 2008, 544).

기독교 상담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확신은 당면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일반 상담과 차별화한다. 마치 Heinz Kohut이 상담자의 실패에 대해 최적의 좌절(optimal frustration)이라 말하듯, 혹은 십자가의 요한(St. John of the Cross)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듯, 내담자의 영적 여정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실망과 고통을 주지만,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자기

(self)를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Parker, 2008). 겹치는 실패와 좌절이 혹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거나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은 아닌가 불안해하는 내담자에게, 성령이 끈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한 연합, 즉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신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는 확신은,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자비로운 손안에서 선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견고한 소망을 일으킬 수 있다.

파커에 따르면 한 사람의 영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그는 로마서 8:16이나 갈라디아서 4:6과 같은 말씀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성령께서 확인하시고 확증하신다고 말한다(Parker, 2008). 이것은 마치 위니콧이 엄마와 유아 사이의 “반영적” 눈 맞춤을 통해 정체감이 주로 형성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도 그와 병행하는 과정을 통해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영해주시는 능력을 통해 운명과도 같은 정체성을 갖게 하시기 때문이다(Parker, 2008, 292). 성령님은 사랑과 돌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영적 방식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의식하고 깨닫게 하신다.

기독교 상담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자의식이 성령님의 초월적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때로는 “공개적으로 ‘내담자는 사랑받을 존재’라고 선언하고, 어떤 안 좋은 경험을 했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과정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가 조용히 그리고 실제적으로 표현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Tan, 2014, 544). 기독교 상담자는 갖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낙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는 내담자를 위로하며, 그(녀)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됨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그럴 때 상담자는 성령님의 도구가 된다.

3. 연약함을 도우심(The Helper)

니케아 신경에서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열정(Harnack, 1888; Scot, 1986에서 재인용), 마음의 동기나 영감이나 계시,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정신적 원리나 하나님의 비물질적 표현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신 분”으로, 즉 신성과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고백 된다. 성령은 생명의 부여자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영과 인격으로서 우리와 더불어 교통하시는 영이시다(고후 13:14). 여기서 교통이란 “성령님의 관점과 정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며, 그와 더불어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시는 은사들과 은혜들에 모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다”(Barnes’ Notes, 2Cor. 13:14). 즉 성령은 영이자 인격으로서 생령인 인간과 상호 소통하시며, 특히 믿음의 자녀들이 연약할 때나 그릇 행할 때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며 (롬 8:26; 엡 4:30), 주의 교회와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기뻐하신다 (행 15:28-29).

성령의 초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ruach)은 성령이나 도덕적인 의미보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나 권능의 관점에서 사용되었다(NBD, 1137). 그것은 선할 때도 있었는가 하면 악한 영일 수도 있었다(삿 9:23; 삼상 16:14-16; 왕하 22:19-23). 왕으로 기름 붓는 것은 성령으로 기름붓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고(삼상 16:13; 시 89:20), 포로 후기 선지자들의 영감은 성령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느 9:20, 30; 스 7:12).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성령에 의한 것이라 여겨졌다(시 51:11). 아울러 신약에 와서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였고(행 1:5), 성령의 은사와 거룩하심을 입은 개개인 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평생 변화와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고후 1:22, 3:18, 4:16-5:5; 엡 1:13; 살후 2:13; 벧전 1:2).

오순절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진 것은 성령께서 믿는 각 사람들 안에 거주하시게 위해서이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시면서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와 함께” 거하시게 하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셨다(요 14:16-17).

성령은 죄인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고 복음에 반응하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격에 내주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하신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자아인 “육신”을 따라 살 때, 성령께서는 그런 인간의 “이기주의, 자기-주장,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의적인 무지 혹은 그 뜻에 대한 선명한 거부 등”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Paige, 409). 성령은 이런 육신을 따르는 생각과 반대되는 삶을 이끄셔서, 믿는 자들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롬 8:6).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면서도 영이셔서 사람의 마음에 거룩함을 창조하시는 ‘거룩성의 부여자’이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성품의 거룩함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다”(Scott, 287).

성령님은 전적으로 믿는 자들의 영적 복지를 위해 일하시는 보혜사이시며,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롬 8:26).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아들됨’은 증언하시되(롬 8:16) 그들의 연약함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후의 안식이 오기까지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연약함을 도

우시며, 무엇보다 그들의 기도의 한계 상황에서 그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그들을 도우신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 혹은 그들 마음의 이해력의 부족, 믿음의 연약함과 기도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도우시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롬 8:27), 즉 우리 마음에서 말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것이다(Meyers, Rom. 8:26). 그것은 우리의 바람과 간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성령에 의해 붙여 넣어지고 확보된” 것이다(Cambridge, Rom. 8:26).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기도는 성령께서 불러 일으키시고, 성령님 자신이 말로 이루 표현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여기서 인격이신 성령님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깊이 관여하신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정교한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의 가장 심오한 정서가 가장 표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무능 아래 ‘탄식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것을 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지만, 성령님께서서는 자신이 인간의 마음에 촉발하신 감정에 반응하시며 우리 대신 간구하시는 것이다(Jamieson, Rom. 8:26).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며, 성령께서는 우상으로 향하는 그들의 지속적인 반역으로 슬퍼하시고 근심하신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사 63:10). 여기서 근심을 뜻하는 *אִטָּב* (*’atsab*)은 비탄에 잠기게 하거나 괴롭힘을 주는 것, 혹은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Barnes’ Notes, Isa. 63:10). 거룩하신 성령님은 성화의 주체로서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의 거역과 불순종은 성령의 마음을 슬프고 애통하게 한다.

효과적인 기독교 상담 사역은 인격이신 성령님이 이끄시고 부여하시는 은사들과 관련되어있다. 그 은사들에는 “권유와 위로(롬 12:8), 치유(고전 12:9, 28), 지혜(고전 12:8), 지식(고전 12:8), 영 분별(고전 12:10), 긍휼(롬 12:8) 등”을 포함한다(Tan, 2014, 542). 그 외에도 예언과 기적과 믿음의 은사들이 있으나, 더 본질적인 것은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가 성령님의 인격적 참여를 인식하고, 성령의 도구로서 상담 과정과 내담자의 삶에 상담자의 인격적 감화가 나타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이로써 기독교 상담자는 자신의 지혜와 이론을 의지하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기보다 성령님의 참여와 도우심을 닦아 연약함을 돕는 인격적 감화를 끼쳐야 하는 책임을 다하게

된다.

4.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내담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이다. 왜냐하면 니케아 신경의 고백에서와 같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기 때문이다”(Scott, 304). 상담자가 성령님의 지혜나 지식을 ‘내적 촉발’, 즉 상담자에게 문제의 근원을 보게 하시고 정확히 분별하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촉발’을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내담자도 더 깊은 영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Tan, 2014).

프로이트나 칼 로저스의 접근을 따르는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역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심리학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심리학이 단순히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도구가 되는 것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인간의 역경을 이해하기 위한 포괄적인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다(DPCC, 1175). 그들이 심리학과 사회과학을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려 것이 아니라 인간 문제에 대한 포괄적 용도로 쓰려했다. 그 결과 인간의 역경이 “결혼 갈등, 아동 학대, 염려와 스트레스 등의 문제들로 환원”되거나 “왜곡된 사회 시스템의 증상으로 이해”되었다(DPCC, 1176). 결국 증상을 치료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을 바르게 운영하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생존경쟁의 치열한 세계 속에서 겪는 차갑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내담자들은 불안하고 외로우며, 이유를 알지 못하고 겪으며 고통을 호소한다. 심리학자들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집중하고, 개인의 고통을 지속하게 하는 사회적 구조에 눈을 돌린다. 불필요하게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들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된 성장과정의 심리적 인과론의 틀에서, 아동기의 무의식적 갈등이 신경증의 원인이므로 그것에 대한 인지와 깨달음(enlightenment), 분석가의 분석에 대한 저항없는 수용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독교상담의 관점에서 볼 때 심리 내적 갈등이나 대상 관계에서의 불안,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야말로 인간이 처한 역경의 본질이며 지속적인

로 삶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타락으로서의 죄이다. 인간의 죄와 타락의 근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혹은 대체하려는 인간의 이끌림과 더불어 그런 상태에 의해 촉발되는 행위나 기질”이다(DPCC, 1173). 구약 선지자들이 국가 이스라엘의 임박한 재난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부패한 그들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그 부패와...마치 그들이 창조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경향을 연결시켰다”(DPCC, 1173).¹⁾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이 가르치고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으로서, 위로자(Comforter), 돕는 자(Helper), 권하는 자(Exhorter), 혹은 상담자(Counselor) 의미를 갖는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세상으로 오신(요 3:16-17, 5:43, 16:27-28, 18:37) 거룩하신 진리의 영이시다(요 6:39, 14:6, 17, 15:26, 16:13). 니케아 신경에서 보듯 삼위일체의 존재 자체에서부터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구별되나 분리될 수 없는 분이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시듯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요 4:25-26, 3:34-36),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요 15:26-27, 16:13-14).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기독교 상담 현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영적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수치심을 무릎 쓰고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용기와 변화의 은혜이다. 그리스도인 내담자의 믿음과 행동, 치료와 성장을 돕는 “모든 참된 크리스찬 조력의 근저에는 성령의 감화가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기독교 상담자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는 다른 사람을 지도하”시며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심리적 성숙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으로 이끄시”기 때문이다(Collins, 2007, 22). 기독교 상담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여정의 연장 선상에서 자신의 영을 살리고(롬 8:10-11) 자신의 한계를

1) 『목회적 돌봄과 상담 사전』(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죄의 관점에서 설명할 때 다음 네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첫째, 인류의 문제는 초월자이시고 의로우신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그 창조주를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상승배적이고 세상을 절대화하게 된다. 둘째, 이런 이상승배적 관계는 결국 인간 자신에게 재난을 주어, 이성, 감정, 공동체, 언어에 침투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오염을 야기한다. 셋째, 이상승배적 변형의 결과는 축적되어 개인의 자아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기구에 까지 오랫동안 영향을 끼친다. 넷째, 죄는 인류 역사와 사회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오염 시킴으로써 인간의 자아가 부패 가운데 형성되었다. 죄는 인간의 의지와 행동 모두를 속박한다(DPCC, 1173-1174).

넘는 이웃 사랑과 공동체에 대한 희생적 섬김으로 이끄시는(갈 5:22-23) 성령님의 사역이다.

예컨대 기독교 변증가 Clive S. Lewis(2018)도 죄의 본질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인 ‘제 영혼을 제 것으로 삼기’ 원했던 마음, 즉 “피조물이 자기 고집대로 하려” 들었던 타락이라 말한다. 인간은 피조물이면서도 자신의 피조물 신분을 아주 벗어나려 했던 것이 죄이다. 이 죄와 타락으로 인간에게는 심각한 심리적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불안과 두려움과 갈등이 지배하게 되었고, 욕망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기심과 교만이 본능적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이런 죄의 현상은 인간 개개인의 존재와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 그리고 역사 전체를 걸쳐 보편적이고 집단적으로 만연한 인간 존재의 양식이자 본질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죄와 고통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영적 성격을 갖는다. 현실의 고통은 죄의식과 직결되어 있어서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깨닫는 것은 자연스럽다(왕상 17:18). 심리학에서는 이런 죄책감을 사회성의 발달에 따른 “발달의 성과(developmental achievements)”라 여기면서도, 그 본질은 어린 시절, 사회나 부모의 억압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제거해야 할 방해물로 생각한다. 그러나 기독교상담에서는 단순히 죄책감을 제거하려 시도하기보다는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와 고통을 직면하도록 격려한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정신분석학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수치심은 위험하고 해롭다는 인상을 심어 주었”지만 기독교의 믿음에 따르면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의 자기 인식이야말로 유일하게 참된 인식”이다(Lewis, 2003, 85-86).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순간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죄인의 자기 인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쩌면 인간의 영적 고통은 신의 부재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가까이에서 만나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과 자신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장과 치유, 그리고 죄의 용서와 화목과 같은 초월의 영적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보혜사 성령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다(요 16:8).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조명하여 죄를 책망하신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은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라 “논증으로 보여주고, 입증하고, 이유를 제시함으로 누군가를 설득하여 어떤 것을 하게 하는” 인격적인 소통의 과정을 말한다(Barnes' Notes). 특별히 죄에 대하여 세상에 입증하시고 선고하시며, 공정한 논증으로 “그들이 죄인임을 충분히 입

증하고, 이것을 느끼게 하실 것이다”(Barnes’ Notes).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지극히 개별적으로 다양하며 또한 그 방법에 있어서 개개인에 대한 지극한 인격적 존중을 전제로 한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전하였을 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하였다(행 2:37).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과 그들의 죄에 대한 지적에 마음이 찢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한편 끔찍한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른 다윗왕을 찾아간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곤장 참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왕이 생각하며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한 이야기를 준비하였다. 나단 선지자는 어느 한 성읍에 사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로 왕의 방어를 낮추고, 그의 죄를 입증하였다. 성령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시인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 보내셨다(삼하 12:1-15).

일반 사회에서는 부끄럽고 파렴치한 것을 영혼의 가장 낮은 경지라 여기며 그런 수치심을 제거하려 한다. 예컨대, 몇몇 사회에서 허용해 온 ‘명예살인’은 가정의 수치를 제거하려는 사회적 살인의 행위였다. 과거에는 “죄와 은혜라는 말이 개인적으로나 공적인 담론에서 올바르게 이해되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문화나 환경이 변하면서 “죄 보다는 질병의 증상을 강조하고, 은혜보다는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조하게 되었다”(McMinn, 2011, 23). 하지만 기독교상담에서는 인간이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오히려 느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여긴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옛 의미는 회복될 수 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자기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성령은 인간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 그동안 기독교 상담가들은 “너무나 자주 죄와 은혜의 가치를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심리학 용어들이 이러한 개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은혜의 크기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범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측면이 있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비극적으로 멀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관계적인 측면도 있다”(McMinn, 2011, 30-31).

아울러 “죄는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가 매일 대면하는 문제에 상당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McMinn, 2011, 148). 아내의 죽음 이후 외로워하며 인터넷 포르노에 눈을

돌리는 것이나, 자녀에게 성급하여 경청하는 대신 큰소리 치는 것,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삶의 중심에 두고 강박적으로 불안해하는 것 등 내담자들이 가진 문제들은 연약함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방해를 일으키는 죄로 구성되어있다. 그렇다고 상담 초기부터 “모든 것이 죄의 문제이므로 죄부터 고백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다. 삶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공감하지는 않은 채 죄를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영혼을 낙심하게 하고 삶의 이유까지 흔들 수 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진리로 안내하실 것이다(요 16:13).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아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과 연합하여 자기중심적 자기애를 벗어나서 끊임없는 자기-드림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시고, 성령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듯,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드러질수록 진정한 자아가 되고, 그 결과 더 드리게 되는 과정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Lewis, 2018). 그러나 이 모든 변화의 과정에 상담자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다. 죄의 애통함과 은혜 발견의 과정을 공감과 따뜻한 직면을 통해 은혜로 바꾸어주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기독교 상담은 인간 죄의 가장 대표적인 면 곧 자신과 내담자의 자기 중심성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깨닫게 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역사의 현상이 될 것이다.

5. 성경적 성화와 영성

성령님은 생명의 부여자이시면서 동시에 “성경 말씀의 부여자”이다(Scott, 272). 니케아 신경에서는 성령님을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 그것은 성령님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궁극적인 저자이시라는 뜻이다(딤후 3:16). 성령님은 거듭남의 과정을 지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영적 여정에서도 진리의 영으로서(요 14:18) 말씀으로 기준이 되어 주신다. 그 결과 기독교 상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나 영적 안내를 제공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것은 명시적 접근만 아니라 암시적 접근을 통해서도 통합적으로 접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다(Tan, 2014).

한편 381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니케아 공의회가 있는 지 6년이 지난 후

어거스틴은 회심하여 세례를 받았다. 어거스틴은 니케아 고백에 따라 삼위일체 각각의 인격이 하나님이며, 모두가 함께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다. 그에 따르면 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영원성, 불변성, 위엄, 능력을 가졌으며, 삼위 하나님 각각의 인격이 있었기에 사랑의 대상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었다. 그래서 “성부 안에는 하나 됨이, 성자 안에 동등함이, 성령 안에 하나 됨과 동등함의 조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령의 신성을 강조하였고,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유대가 되신다고 말한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성부 때문에 모두가 하나이며, 성자 때문에 모두가 동등하고; 성령 때문에 모두는 함께 연결된다”고 하였다(Swete, 1912, 326). 그의 성령론은 성령님을 인격적이며 관계적인 사랑의 근원으로 보게 한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의 영으로서, 우리를 그 사랑의 교제에 참여시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니케아 신경에서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함께 그리고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어거스틴은 성령님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다(Swete, 1912, 327).

어거스틴에 따르면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 마음의 안식이 있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안만이 인간의 불안을 해결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며,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죄와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생명” 곧 공동체이시며, 삼위의 교제와 교통으로 우리 인간을 초대하셔서(Swete, 1912, 327)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추상적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상담자이시며, 우리 안에 근심이 많을 때 주님의 위로로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시 94:19). 이로써 어거스틴은 인간 영혼의 위로자이자 상담자이신 성령의 역할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청교도 신학자 John Owen(2000, 168)은 “성령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자비와 주권적 은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받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인식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 가운데 성화는 하나님의 영의 직접적인 사역으로서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중생하게 하신 성령님은 인간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 오웬에 따르면 성령의 성화 사역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와 관련된 것으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성화의 완성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거기에는

거룩한 마음의 성향과 기질, 영광스럽고 완전한 습관, 변덕 없는 행동, 거룩한 신자의 성장,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 등이 포함되어있다(Owen, 2000, 335). 그리스도인의 중생이 단번에, 즉시 완성되는 사역이라면, “성화는 진보적이며 발전적으로 일어나며]...[사람에 따라] 차등이 있[고]...[신자의 영혼 속에서] 점차적으로 일어난다”(Owen, 2000, 342).

특히 “성령님의 사역과 직임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인데 성령님은 교회의 위대하신 위로자로서(the Great Comforter), 믿는 자들의 믿음과 용기와 사랑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거절할 수 없는 위로를 베푸신다. 그 결과 은혜로 사람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심어 주시고, 그 결과 그들이 착하고 정직한 심성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화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겨난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행 15:8,9),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최고의 순종을 이루는 것이다(Owen, 2000, 368).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거룩함과 생명력이 솟아나게 된다.

기독교상담에서 “성령님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현재 상태나 수준을 넘는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내실 수 있다”(Tan, 2014, 546).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 프로이트도 나르시시즘에 대해 말할 때 인간의 성장과 사랑이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간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혈육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던 것처럼(마 16:17), 그리고 진리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처럼(요 1:13), 내담자의 불안에 대한 대처나 대인관계 안에서의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성숙, 상담자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넘는 위로와 지혜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4년 이상 필자가 상담해 온 한 여성의 사례를 보면 결혼생활 이전부터 줄곧 외도를 해 온 남편의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된 데서 오는 분노와 배신감,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남편의 폭력과 욕설은 그나마 남아 있는 삶의 에너지마저 앗아 가버렸다. 그뿐 아니라 그녀를 오랜 기간 상담한 어느 기독교 상담사는 다루기 힘든 우울하고 침체에 빠진 그녀를 ‘귀신들렸다’고 진단하고 여러 가지 근거로 귀신들림을 합리화 함으로써 그녀를 깊은 영적 혼란에 빠뜨렸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귀신들린 자신을 벌주시고 버리시는 이미지의 하나님이였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주시는 인내

심과 마음의 감화로 내담자가 말씀의 약속을 조금씩 붙들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상황은 바뀐 것이 없으나 이제는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매일 무너지지만 다시 남은 힘으로 하나님과 자녀들을 위해 아직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상기하며 고군분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기독교상담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것”이어야 한다. 상담 현장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상담자와 내담자의 만남 가운데 거룩한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어야 한다. 그리고 양자 모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 깊은 영적 변화와 성장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이다(Tan, 2014, 546).

상담 전반에 성령의 역사와 성화를 통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고독과 침묵, 경청과 안내, 기도와 중보, 학습과 묵상, 회개와 고백, 내려놓음과 복종, 금식, 경배, 교제, 단순성, 서비스, 증인 등과 같은 것들”을 요청해야 한다. 상담자는 영적인 안내자로서 성령의 도우심과 감화가 필요한 삶의 면면에서 내담자가 성령님을 상기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마음의 평안과 실천과 선택의 지혜를 주실 것을 구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성령의 임재하심과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거기에 가까이 갈수록 “내담자의 치유와 성장이 더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Tan, 2014, 546).

성령께서 어루만지시면 자신을 학대한 부모나 신뢰를 배우자에 대한 마음의 분노, 그리고 유독 자신의 인생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아상을 회복하게 된다. 외부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의구심과 불확실성이 끼어들 때도 있으나 자신의 마음에는 약한 영이 자리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게 되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자기 연민에 가득했던 마음이 감사와 배려의 마음으로 성장하게 된다. 성령님은 상담의 현장에서 무너진 마음의 기초를 말씀과 신뢰로 다시 세우시는 참 상담자 이시다.

그렇다면 최근 관심을 얻고 있는 기독교상담에서의 영성은 니케아 신경의 고백과 같이 철저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인격적이신 성령님과 관계된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영성이라 하면 중세기 수도원, 전통적 영성 지도, 관상기도와 같은 카톨릭적 개념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영성이 인간의 행복과 육체 건강, 그리고 정신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몇몇 연구들 덕택에(Koenig, 1999; Levin, 1994) 상담에서 영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인간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만 아니라 영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상담과 심리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그뿐 아니라 내담자의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래 복미 중심의 영성지도에 관상과 임재, 즉 관조와 자각과 상호주관성이 강조되고 있으나(이만홍, 2017), 참된 영성은 오직 성령님에 대한 경배와 임재에 대한 사모함과-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사모하는 것이다-성령께서 주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에서 오는 복종과 변화가 없다면 건강한 기독교적 영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기복적 관점에서 보통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영성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의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마저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알고 믿는다.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뜻을 [성령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변화를 하거나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변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김용태, 2018, 78).

요셉은 자신을 학대하고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오히려 따뜻한 말로 위로하였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 50:20). 요셉처럼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감화를 입은 사람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통찰하며, 자기 연민의 한계를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 즉 인격이 성숙하다는 것은 그가 주의의 애용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삶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을 향해 더 큰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최운갑, 2018, 85).

기독교상담에서 영성이란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처럼 성령 하나님을 비롯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살아가려는 목표를 공유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²⁾ 그래서 옥스퍼드의 교수이자 C. S. Lewis의 연구자인 Alister McGrath(1995) 교수는 기독교의 영성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하고 성장하고 강화하는 것"이며(고전 2:14-15),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며 살

2) 기독교 상담에서의 성경적 영성을 Siang-Yang Tan 교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갖는 것, 둘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갖는 것, 셋째,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는 것, 넷째, 성령께서 주신 영적 은사들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것, 다섯째, 성경에 나타난 영원한 관점과 일치하는 세계관과 사고를 발전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신비로운 측면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것 (Tan, 2014, 548-550).

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라 정의하였다(McGrath, 1995; Tan, 2014, 548). 이 것이야말로 곧 니케아 신경이 고백하는 성령님의 주되심과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 중심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III. 닫는 글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람의 심리는 자기-보존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자기에적 행동을 선택하며, 유아기로부터 자신의 사랑을 타인에게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사랑을 얻기 위한 행동을 선택한다(Freud, 1914). 하지만 기독교 상담자는 성령님의 초월적이며 영혼에 내재하시는 권능을 통해 “그리스도화”(Christ-actualization) [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케” 하시는 사역의 증인이다. 그것은 곧 인간의 자기 사랑의 한계를 넘는 순종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상담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잠재력을 개발하면서,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게 하신다(Collins, 2007, 33).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기독교상담에서 성령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생명 부여자의 사역을 고백한 니케아 신경은 기독교 상담의 뿌리와의 같다. 니케아 신경의 고백과 같이 성령님은 생명의 부여자로서 죄인을 거둔다 하시며,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친히 증언하신다. 상담자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기독교 상담은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신에게 성령께서 새생명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해야 한다.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이자 인격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며, 말씀의 진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이루어가신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며, 인격으로서 사람을 감화하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은혜를 얻게 하신다. 기독교 상담자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격을 체현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화와 교훈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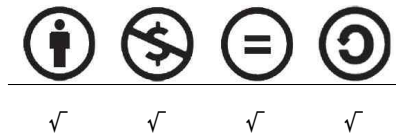
성령의 감화를 받는 기독교상담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교인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도울 수 있다(Collins, 2007, 23). 그리스도께서는 기독교 상담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요 20:22) “성령의 도구들(organa spiritus sancti)”로 삼으시고, 개별적인 정서의 회복

이나 고통의 완화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신자들을 한 몸으로 연결시키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

•논문 투고일: 2026년 01월 30일

•논문 수정일: 2026년 03월 04일

•게재 확정일: 2026년 03월 11일



【참고문헌】

- 김명혁 (1994). 한국교회와 성령론. *신학정론*, 12(1). 173-253.
- 김용태 (2018). *기독교 상담의 이해와 원리*. 학지사.
- 변종길 (2012).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말씀사.
- 손성혜 (2024). 기독교 상담자의 관점에 따른 성령과 상담: 해석 현상학적 분석(IPA) 연구 중심으로. 개신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만홍 (2017). *영성과 치유: 심리치료와 영성지도의 통합을 위하여*. 로템포레스트.
- 정미현 (2014). 성령의 치유 사역과 기독교상담. *성경과 상담*, 13. 83-102.
- 최윤갑 (2018). 성령과 위로의 사역.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영성과 치유: 심리치료와 영성지도의 통합을 위하여』. 고려신학대학원.
- Adams, J. E. (1973)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the practice of Nouthetic counseling*. Zondervan.
- Atkinson, W. P. (2012). *Baptism in the spirit: Luke-Acts and the Dunn debate*. James Clarke & Co.
- Barnes' Notes on the Bible. <https://biblehub.com/commentaries/john/16-8.htm.&isaiah/63-10.htm>. 2025년 3월 18일 검색.
- Barnes' Notes on the Bible. https://biblehub.com/commentaries/2_corinthians/13-14.htm. 2025년 4월 5일 검색.
- Calvin, J. (1986). *기독교강요*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 역,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생명의 말씀사. (원전 1559 출판).
- Calvin, J. Romans 8:16. <https://biblehub.com/commentaries/romans/8-16.htm>. 2025년 4월4일 검색.
- Cambridge Bible for Schools and Colleg <https://biblehub.com/commentaries/romans/8-26.htm>. 2025년 3월 16일 검색.
- Coe, J. H., & Hal, T. W. (2016) *변형심리학* (김용태 역, *Psychology in the spirit*). 학지사. (원전 2010 출판).
- Collins, G. R. (2007) *크리스찬 카운슬링* (3판) (피현희, 이해련 역. *Christian counseling*). 두란노서원. (원전 1988 출판).
- Crabb, L. (2005), *Connecting: Healing for ourselves and our relationships*. Thomas Nelson.

- Denzinger, H. (1957). *The sources of Catholic dogma* (R. J. Deferrari, Trans.: 30th ed.). B. Herder Book Co.
- Douglas, J. D. (Ed.) (1982). *New bible dictionary* (2nd ed.). InterVarsity Press
- Ellicott's Commentary for English Readers*. https://biblehub.com/commentaries/1_thessalonians/1-5.htm. 2025년 3월 18일 검색.
- Freud, S. (1914),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In J. Strachey (Ed. &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4, pp. 67-102). Hogarth Press.
- Giszcak, M. (2023). Who is the Holy Spirit. Augustine Institute. <https://formed.org>. 2025년 3월 14일 검색
- Houston, J. (1991) *The transforming friendship: Inner life of the Christian*. Lion Publishing.
- Jamieson-Fausset-Brown Bible Commentary. <https://biblehub.com/commentaries/romans/8-26.htm>. 2025년 3월 16일 검색.
- Koenig, H. (1999). *The healing power of faith: Science explores medicine's last great frontier*. Simon & Schuster.
- Levin, J. (1994). Religion and health: Is there an association, Is it valid, and is it casual?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8, 1495-1484.
- Lewis, C. S. (2003). **고통의 문제** (김회권 역, *The problem of pain*). 홍성사. (원전 1940 출판).
- Lewis, C. S. (2018). **순전한 기독교** (장경철, 이종태 역, *Mere Christianity*). 홍성사. (원전 1952 출판).
- Luther, M. (1999). *Lectures on Galations, 1535* (J. Pelikan, H. C. Oswald, & H. T. Lehmann, Eds., Vol. 26). Concordia Publishing House.
- McGrath, A.. (1995) *Evangelicalism and the future of Christianity*. InterVarsity Press
- McMinn, M. (2011). **죄와 은혜의 기독교 상담학** (박성은, 전요섭 역, *Sin and grace in Christian counseling*). (원전 2008 출판).
- Meyer's NT Commentary. <https://biblehub.com/commentaries/romans/8-26.htm>. 2025년 3월 16일 검색.

- Owen, J. (2000). **개혁주의 성령론** (이근수 역, *The Holy Spirit*). 여수론. (원전 1674 출판).
- Paige, T. (1993), The Holy Spirit. in G. F. Hawthorne & R. P. Martin (Eds.)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InterVarsity Press.
- Schaff, P. (Ed.).(1890). The seven ecumenical councils.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I, Vol. 14).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https://en.wikipedia.org/wiki/Nicene_Creed#cite_note-45. 2025년 3월18일 검색.
- Scott, H. M. (1986).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Nicene theology*.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Press.
- Swete, H. B. (1912). *The Holy Spirit in the ancient church: A study of Christian teaching in the age of the fathers*. Macmillan and Co.
- Tan, S.-Y. (2014). **상담과 심리치료: 기독교적 관점**. (정동섭, 김영근, 김형선, 유재성, 전요섭 역,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이레서원. 원전 2011 출판.
- Turner, M. (1992). Holy Spirit. In J. B. Green, S. McKnight, & I. H. Marshall (Eds.),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InterVarsity Press.
- Williams, R. (2002). *Arius: Heresy and tradition* (Rev. ed.). Wm. B. Eerdmans Publishing.

[Abstract]

The Confession of the Holy Spirit in the Nicene Creed and the Christian Counseling

Ha, Jaesung*

The key point of the Nicene Creed is the confession that Jesus Christ is of the same essence as God the Father. However, the theological climax of the Creed is 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 affirming that the Holy Spirit is God, equally divine with the Father and the Son. The Niceno-Constantinopolitan Creed of 381 confesses the Holy Spirit as the “Life-giver,” affirming that He is a personal being. In Christian counseling, the Holy Spirit is the One who brings about fundamental transformation through counseling, not only in the believer’s regeneration and sanctification. The Holy Spirit as the Paraclete essentially is the Comforter and Counselor. Just as the work of regeneration and sanctification by the Holy Spirit connects the believer to Christ, the ministry of healing and salvation is made possible through Christian counseling. The Holy Spirit works within both counselor and counselee during the counseling process, shaping a firm spiritual identity. Therefore, the strengthening of faith and the illumination of God’s love through counseling are entirel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is is a crucial touchstone distinguishing Christian counseling from general counseling. Through the Holy Spirit, Christian counseling guides the counselee into truth, leading them to turn from self-centeredness, and ultimately bringing about transformation that surpasses human limitation—namely, sanctification into the likeness of Christ.

Key words: the Nicene Creed, the Holy Spirit, life-giver, Christian counseling, sanctification

* Korea Theological Seminary, Practical Theology / Professor